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가시적 성과 거둬

촘촘한 금융복지 지원체계, 서민 금융 상담 지원·위기가정 구제

금융 상담과 채무관리 상담 등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돕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지난해 9월 20일 개소 이후 지난 1년간 채무조정과 채무상환 등 총 1,341건의 맞춤형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담감 및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55명의 시민을 빚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담소는 종교계와 시민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활용해 상담소 채무조정 후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 9명의 소액잔여채무를 완전히 탕감시켰다. 또, 쌍무 간 채무조정을 통해 13명의

총 2억여원에 대한 채무액을 4000만원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통해 총 46명, 8억여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등 약탈적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상담소는 맞춤형 금융 상담과 채무관리 상담을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을 불어넣어왔다.

일례로,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66세 여성은 부부가 1999년 한식당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부채가 증가해 배우자가 자살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자녀가 우울증으로 사회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빚 때문에 죽지 말라'는 상담소의 방송 인터뷰를 보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채권이 10년 이상 장기연체되고 채권 주인이 바뀌면서 채권 기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담소가 2달여에 걸친 채권기관 추적과 정리 방법 모색, 파산에 이르는 모든 법률 절차를 대행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동시에, 상담소는 상담업무와 더불어 금융복지 시민강좌와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소, 청년 금융코칭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15회, 약 1,300명에게 교육 및 상담을 추진, 시민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금융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관련, 상담소에는 현재 소장을 포함해 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가계채무관리상담(가계수입과 지출 균형, 교육·주택·창업 등 목적자금 관리, 금융상품상담 등)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상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서민금융지원 안내) △시민 금융복지 교육(채무관리, 올바른 소비습관 등)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불법사금융 예방상담(대부업체 거래시 유의사항) 등 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담소는 향후 전주지방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민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범시민 주빌리 운동을 통해 시민 모금을 확대하고 모금한 후원금으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추진해 금융 취약계층을 구제할 계획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저소득층 가정에 우리농축산물 전달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농협무주군지부, 5가구에 무상지원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아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대표 허권)와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이정환)는 관내 농촌지역 저소득층 5가정에 우리농축산물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계 우리농축산물 소비캠페인을 실시해 우리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로 균형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운동본부와 농협 무주군 지부는 저소득층 전국 1,200가정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에 복우촌 생생생계탕 3종 세트와 캔 스페셜 세트 2호 등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2만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서울 서대문에 본부를 두고 각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전국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16개 지역본부와 함께 사회공헌사업 '지역본부자체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협임직원들이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회원으로 가입해 매월 1,000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평소 지역농협과 농협무주군지부 직원들이 지역사랑을 실천하며 알게 된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농업인 개인수술비 지원사업(NH 리브트리카드 협약)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사업(NH 리브트리카드 협약) ▲농촌지역 조손(孤孫)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 ▲고객지원센터 협약 '농촌지역 독거노인 말벗서비스' 및 생필품 전달 사업 ▲농촌지역 어르신 장수사진(영정사진) 무료촬영 사업 운영 등이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대표 허권)는 전국의 농협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운영되는 단체로, 이 외에도 다양한계층의 시민들에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청·장년 구인·구직 알선해 드립니다

지역내 3개 중소기업 대규모 생산직 채용 지원

전주시가 직장을 찾지 못한 구직자들과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신생업체를 이어주고 있다.

전주시 일자리센터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주 새일센터에서는 지역내 3개 중소기업의 대규모 생산직 채용을 지원하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7회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장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주시 팔복동에서 자동차안전벨트를 제조하는 신생업체인 (주)우주테크와 (주)세원세이프티, (주)비전산업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구직자들의 신생업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취업 의지로 이날 행사에는 5세 이하 생산직을 희망하는 청·장

년층 구직자 200여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3개 업체는 이날 면접을 통해 총7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업체들은 이번 현장면접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자동차부품 조립 및 검사원 등 총 17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면접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인력 보조, 구인홍보를 협조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가 참여기업 구인조건에 맞는 구직자 개개인별 상세한 맞춤형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현장면접 행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24일에도 이번과 참



전주시 일자리센터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주 새일센터에서는 '제7회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다.

여한 3개 업체를 참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면접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전주시청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농어촌공 정읍,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 이상 '無'

내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내 지역은 농업용수 확보가 충분해 2018년도 영농기 물 부족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에 따르면 평년 1,300mm의 강우가 내리는 도내에 올해 9월 26일 현재까지673mm의 강우량이 내려 예년에 비하여 적게 내렸으나 농업용수 확보가 비교적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읍지사 내 29개 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계획 저수량의 63%인 2천4백만톤으로 평년 59%에 비해 4% 정도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

주요저수지의 저수량을 살펴보면 섬진법의 농업용수 저수량은 58%를 보이고 있으며 내장저수지 60%, 흥덕저수지 67%, 용산저수지 76%, 입암저수

지 81%의 저수량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영농용수를 위한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동지구 말단지역에 가뭄대책으로 양반관정 2공을 개발하여 말단지역 부족 용수를 확보하여 내년도부터 말단지역 용수공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임실군지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개최

농협 임실군지부와 임실군은 26일 임실군청 청사내(후문 주차장 내)에서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 관내 농·축협, 임실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임실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석맞이 임실지역 농축특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 관내 농·축협, 임실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임실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석맞이 임실지역 농축특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임실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헤파, 사과, 배, 복숭아, 밤, 대추, 포도, 잣과, 포장육류(소·돼지고기), 각종

선물용 치즈 제품 등을 판매했다.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실익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저렴한 (시중가 보다 10~20% 저렴) 가격으로 공급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 완 농협 임실군지부 지부장 및 임실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은 앞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